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축산계열화법,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농가와 계열사 상호 협력체계 구축 기대

시·도	개소	사육호수	시·도	개소	사육호수
서울	-	-	강원	-	123
부산	-	2	충북	10	247
대구	1	4	충남	16	644
인천	2	31	전북	4	503
광주	-	5	전남	4	302
대전	-	7	경북	1	535
울산	-	15	경남	1	215
경기	11	710	제주	1	60
계	개소 51 / 사육호수 3,403				

[전국계열화 업체수 / 2011년 기준(토종닭,산란계 포함)]

‘축산계열화법’이 오는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축산계열화법은 표준계약서 작성, 사육경비 지급일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계약농가협의회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업체)와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들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도모는 물론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계열화 참여농가 94%

1980년대 후반부터 육계를 시작으로 국내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육계계열화사업은 그 동안 계열업체와 계약농가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조정기구 및 제재법규가 없었던 관계로 서로간의 불신만 증폭시켜 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시행되는 축산계

열화법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에서 축산계열화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지난 2011년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의 의원입법으로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국내에는 계열업체가 51개사(토종닭, 산란계 포함)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계기준으로 볼때 계열화사업 참여율은 94% 수준(2011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경비 25일 이내 지급해야

이제는 계열업체가 계약농가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즉시 농가에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에는 병아리, 사료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 닭 출하 시 품질기준, 사육경비 내역 등 지급일, 사육시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제는 사육경비 결제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사육경비의 지급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최단기간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산이자율(연 6%)로 정해 지

급(과태료 최대 800만원)토록 하여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계약사육농가협의회 활동 역량 강화

축산계열화법에는 계열업체와 계약농가들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계약농가에서는 닭을 출하함에 있어서 출하기준(농식품부장관 고시)에 미치지 못하는 닭을 공급해서는 안 되고, 계열업체는 농가의 닭 출하를 거부하거나, 사육비를 경감하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사육자재(병아리, 사료 등)를 공급할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과태료(최대 8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계약농가들은 그들의 충분한 의견을 계열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사육농가협의회’가 그것이다. 이들은 계열업체와 사양관리, 원자재 품질 등에 대해 협의하여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협상을 할 수 있으며, 계열업체는 농가협의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두어 계열업체와 계약농가간의 분쟁을 사전 조절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였다. 더욱이 이번에는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회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열업체 또는 계약농

가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게 되고 조정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일의 합의기간을 거쳐 협의회를 열어 1달 안에 심의조정을 알리게 된다. 만약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로 했다.

계열업체와 계약농가의 윈윈기대

주목할 것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 계열업체와 계약농가에 계열화사업의 정책수립과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또한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축산계열화법은 계열업체와 계약농가간의 상호 윈윈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농가에서는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계를 키워 사육할 의무가 있고 계열업체에서는 계약농가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축산계열화법이 육계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닭고기 자조금 조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계열화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양계농가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 자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 자조금 납부 절차는 소식지와 닭고기 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3원, 삼계 1.5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관리위원회)



건국대 명예교수
김정주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은 계열업체와 사육농가 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닭고기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1월 발표한 표준약관이다. 이를 통해 계약당사자의 이익 증대는 물론 안정적인 육계사업의 발전과 국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각 조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표준약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는 약관이다. 즉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만든 약관임에도,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은 그 세부항목에서 사육농가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칼럼원자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을 들여다보니...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제10067호로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을 발표하였다. 이는 육계업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육계인 모두가 바라는 바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고칠 것이 많아 여기에 그 의견을 제시해 둔다.

■표준약관 제3조 (사양관리) ④항에는 “갑(계열업체)은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출하일정변경 등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을(사육농가)에게 통보하여 대비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출하일정 변경은 순전히 업체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조치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하일정 변경을 천재지변이나 법정전염병 발병 등 비상사태와 동일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표준약관 제7조 (자재의 공급과 품질) ③항에는 “을은 갑이 공급한 사료의 품질 상태 및 중량을 확인한 후 인수증을 사료공급업체에게 송부하고 갑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장에 도착된 사료의 품질 상태 및 중량을 농가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그러므로 농장에 도착된 사료의 품질상태 및 중량을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확인해 주어야 한다.

■표준약관 제8조 (병아리 입추) ①항에는 “을은 육계 출하 후 계사 내외부 보수 및 물청소와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각종 유해세균 번식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유해세균 번식 차단'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얼버무려 두면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 또 다른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

■표준약관 제8조 (병아리 입추) ⑤항에는 “병아리의 폐사 원인이 병아리 품질 불량 때문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갑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쌍방이 인정하는 정밀진단기관의 정밀진단결과를 적용하되 진단을 위한 소요비용은 쌍방이 똑같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쌍방이 인정하는 정밀진단기관을 찾기가 실제로 어려우므로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표준약관 제13조 (상차 및 운송) ①항에서는 “육계 출하시 운송은 갑의 책임으로 하며, 을은 사육농장까지 차량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로를 정비하여야 한다. 진입로 정비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가 사도(私道)일 때만 정비가

가능하므로 정비책임을 '도로' 대신 '농장 내 통로'로 제한하고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 을은 면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표준약관 제13조 (상차 및 운송) ③항은 제 12조 ⑤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여야 한다.

■표준약관 제16조 (사육경비 지급) ①항 “갑은 최종 출하일로부터 25영업일 이내에 사육경비를 정산하여 '을'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육계농가 생계를 위하여 육계출하 1주일 이내로 가정산 금액(예상총액의 70%이상)을 선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표준약관 제17조 (원자재의 임의 처분금지) ②항에서는 “을이 제 ①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을은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갑의 손실에 대하여 을은 사고 발생 확인일 기준 육계가격(대한양계협회 발표자료 적용)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배는 지나치므로 '손실액 범위내 변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표준약관 제18조 (기한이익상실) ①항에서는 “을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에 대한 채무 잔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갑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처분을 받거나 부도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갑이 이행보증보험 부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을의 손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표준약관 제19조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조항에서 “을이 갑과 사전 협의 없이 타 병아리를 임의로 입추 하거나 갑의 병아리 입추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이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을은 1회전 입추 계약수수에 해당하는 병아리 대금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면 될 것이므로 이하 내용은 불필요 하다.

■표준약관 제22조 (계약의 해지) ①항에서는 “을의 사양관리 부실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연속하여 사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양관리 부실 또는 태만 여부 판정이 자의적일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HOT ISSUE

0 0 2

육계 자조금 3원에서 5원 인상키로

닭고기자조금대의원 총회 확정 후 빠르면 3월부터 적용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7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차 관리위원회를 갖고 닭고기자조금 거출금액 변경(안)에 대한 논의 끝에 육계 농가들로부터 거출하는 금액을 3원에서 5원(계열업체 3원, 육계농가 2원)으로 인상키로 하였다. 이러한 안은 오는 3월 6일 개최되는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인상되는 품목은 삼계가 1.5원에서 3원, 종계가 30원에서 5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단 종계의 경우는 대의원 총회 전까지 종계업체와 협의를 거쳐 현행 30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합의될 경우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에 인상되는 닭고기자조금 거출금은 육계가 계열업체 3원, 육계농가 2원으로, 삼

계는 계열업체 2원, 양계농가 1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닭고기자조금 거출금액은 2009년 6월 시행 당시 육계 5원, 삼계 2.5원, 토종닭 7.5원, 종계 50원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농가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 12월 대의원총회에서 육계를 3원으로 낮추는 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당시에 3원과 2원을 놓고 2차 기립투표까지 가는 끝에 결국 3원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이처럼 닭고기자조금 거출금 변경은 직접 농가들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언제나 뜨거운 감자로 다루어진다.

닭고기자조금은 금년 47억 2천만원으로 증액되면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해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도종닭협회에서 자조금에 참여하면서

규모가 더욱 커졌으며, 교육, 연구, 홍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닭고기자조금 거출금액이 인상될 경우 30%정도 금액 증가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자조금 규모 확대를 통한 육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 종계도태사업 시행에 30억원이 쓰여지는 만큼 금년 자조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닭고기 자조금 거출금액 변경(안)]

구분	현행	변경
육계	3원	5원
삼계	1.5원	3원
토종닭	10원	10원
종계	30원	50원(?)

* 종계는 대의원총회전까지 종계인들과의 협의 후 인상키로 함

정부, 안정적 수급조절 위해 육용 종계 감축 추진

농식품부, 종계가격의 30% 지원... 양계협회 및 계육협회 감축사업 공동시행

정부가 장기불황으로 인한 육계산업의 회복을 위해 육용 종계 감축에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21일 올해 병아리 생산잠재력과 육계 사육 마리수의 증가로 닭고기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육용 종계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너무 많은 육용 종계수로 인해 양계농가와 계열화업체 모

두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종계 감축의 취지를 밝혔다.

종계 감축사업은 (사)대한양계협회와 (사)한국계육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양계농가와 계열화업체 간 감축 물량은 2 : 8 수준을 맞출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원종계 도입수가 23만 8천수(D-line기준)로 올해 종계 공급도 과잉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 과잉된 종계를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종계분양 및 원종계 도입수의 쿼터제 실시를 통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육용 종계 감축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세부 시행지침을 위반하는 양계농가 및 계열화업체는 축산 계열화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 차량 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 시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지원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육계 생산성 10년간 어떻게 변했나?

6주째 체중 13% 늘어, 연간 1,180억 사료비 절감

농촌진흥청은 지난 10년간(2000~2010년) 우리나라 가축의 생산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육계의 경우에는 6주째 체중이 2.3kg에서 2.6kg으로 13%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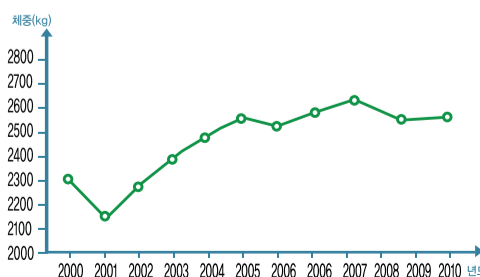
육계농가에서 가축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기초해 사료급여량을 결정하면 과거처럼 생산 안전성을 염려하여 10%를 추가 급여했던 사료량을 줄일 수

있어 연간 약 1,180억 원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원경 원장(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10년간 농업 중 축산업 비중이 24%에서 40%로 상승한 것은 체계적인 가축 개량 노력과 과학적인 가축의 영양관리 기술 개발이 크게 기여한 결과"라며, "앞으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 생산과 친환경 축산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축산분야를 보면 한우와 거세우는 24개월령 체중이 545kg에서 656kg

으로 20% 향상됐고, 젖소의 305일 기준 산유량은 8,086kg에서 9,563kg으로 18%, 산란계의 산란율은 82%에서 89%로 9%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 6주 체중]

VIV ASIA 2013 국제 축산박람회 개최

방콕 BITEC 전시센터에서 3월 13일부터 15일, 3일간

VIV ASIA 2013 국제 축산박람회가 방콕 BITEC(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er) 전시센터에서 진행된다. 개최기간은 3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3일간 진행된다. 개최 예상규모는 40여 개국에서 650개 업체, 1,200여 개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참가객은 약 30,000명이 예상된다. 방문자 업종은 동물약품, 축산업 장비 및 기자재 생산업, 인공수정, 바이오관련업체, 축산관련 협회, 관련 미디어 등이 될 예정이다. 전시 품목은 양계전반에 관련되며, 계란가공, 추가공, 케이지, 부화기, 급이·급수기, 영양제, 동물약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 채란장비 등이다.

이에 대해 양계인과 양계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사)대한양계협회를 비롯한 각 단체에서는 참관단을 모집하여 파견한다.

참관에 관심이 있는 분은 관련 단체로 문의 바란다.

육용종계노계 제품 품평회 시행

육용종계노계의 시장가치 증대방안 연구용역사업을 진행 중인 공주대학교(책임연구원 김계웅 교수)에서는 지난 2월 4일, 5일 양이틀간 다문화가정(베트남, 필리핀, 등)대상으로 육용종계노계 제품 품평회와 설문을 실시하였다. 닭고기 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용역사업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팀은 조만간 최종 연구보고회를 통해 육용종계 노계육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H O T
ISSUE

0 0 3

농경연, 2~3월 육계산지가격 관측정보 내놔

병아리 생산잠재력 높아...3월 산지가 1,800~2,000원/kg 전망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이하 농경연)는 2~3월 육계 산지가격에 대한 관측 정보를 제시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2012년 11월에는 육용 종계 입식 마리수가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한 49만 마리였으나, 2012년 총 입식물량 증가로 올해 6월까지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속적인 종계 도태와 가격 약세, 생산비 상승에 따른 병아리 입식 기피현상을 감안하더라도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높아 2~3월 도계 마리수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월 도계 마리수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5,207만 마리, 3월에는 3.0% 증가한 6,051만 마리로 예상치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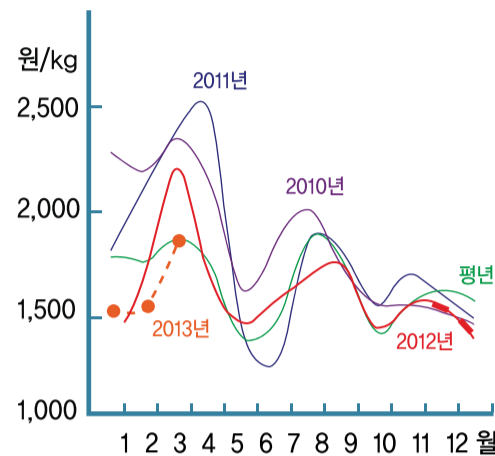
또한 올해 2~3월 닭고기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 감소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2월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3~15% 하락한 1,500~1,700원/kg, 3월에는 전년 대비 10~19% 하락한 1,800~2,000원/kg으로 전망했다.

한편 농경연은 (사)한국계육협회 회원사의 평균 생산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2012년 양계 생산성은 전년 동기간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1~11월) 평균 생산지수는 284으로 2011년 269.3보다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1월 생산지수는 308.3으로 2011년의 295.9보다 4.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육계 산지가격 전망

농식품부, 계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지원

준전업농~전업농은 보조 및 융자, 기업농은 이차보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양계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계사의 신개축이나 개보수 시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계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자별 지원방식은 준전업농~전업농은 보조와 융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융자)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전업농의 기준이 닭 3만수 이상(토종닭은 1만5천수 이상, 육용종계는 1만 5천수 이상, 토종종계는 1만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30만 개 이상, 토종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5만 개 이상)이며, 준전업농은 전업농의 1/3수준 이상이고, 기업농은 전업농의 3배 수준이상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 범위는 '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에 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신축계사의 경우 기존계사 철거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동 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에는 10년 이내에 기존계사 부지에 계사개축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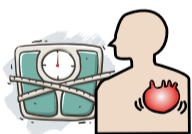
지원대상은 계사시설과 축산시설이다. 계사시설은 급이·급수·전기·착육·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케이지, 전기시설 등 내부 기자재이며, 축산시설은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계란 또는 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 포장기,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무허가계사이며, 무허가 계사의 경우 축사 내 일부 무허가 계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계사로 분류된다.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각 시도별 축산과에서 개별로 접수하며, 농식품부에서는 각 시도별 신청을 접수받아 2월말까지 접수마감한다고 밝혔다.

닭고기 가슴살, 다이어트 및 심장질환에 효과적



농촌진흥청, 성분분석 닭고기 영양적 우수성 밝혀

닭고기 가슴살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닭가슴살은 지방의 분해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에도 좋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강근호 농업연구사는 "체내에 차곡 차곡 쌓이는 포화지방산은 낮고,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체내에 쌓이지 않는 다가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아 다이어트

에 좋다"고 밝혔다. 또한 "닭고기 가슴살에 함유되어 있는 카르니틴은 인체의 지방산 대사 분해를 돕는 역할을 해 다이어트에도 좋을 뿐 아니라, 심장발작이나 심장근육 손상으로부터도 보호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각종 살코기의 100g 당 영양성분을 비교해 보면, 닭고기 가슴살에는 포화지방산이 36.7%이며, 다가불포화지방산은 30.8%이다. 소고기의 포화지방산이 45.4%, 다가불포화지방산이 5.3%이며, 돼지고기는 포화지방산이

38.2%, 다가불포화지방산이 11.8%로 닭고기 가슴살이 월등한 다이어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닭고기의 일반성분 분석을 해봐도 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각 식품 100g 당 소고기는 단백질 22.27g, 지방 3.54g, 에너지 127kcal이며, 돼지고기는 단백질 21.06g, 지방 4.22g, 에너지 128kcal인 반면, 닭고기 가슴살은 단백질 23.2g, 지방 1.65g, 에너지 114kcal다. 이처럼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은 낮으며 에너지 함량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닭고기 가슴살에 들

어 있는 카르니틴이다. 카르니틴은 주로 간이나 신장에서 합성되며,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운반해 에너지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통해, 체내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그 외에도 닭고기에는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판토텐산 등 비타민 B복합체를 고루 함유하고 있으며, 철, 마그네슘, 인, 칼륨, 아연, 구리 셀레늄 등 각종 무기물을 고루 함유하고 있다.

〈자료제공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강근호 농업연구사〉

식육(살코기) 100g당 영양성분 비교
(출처 : USDA, 2008)

조 성	일반(g)					지질(%)			무기물(mg)							비타민(mg)						
	수분	단백질	지방	조화분	에너지(kal)	포화지방산	단가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철	마그네슘	인	칼륨	나트륨	아연	구리	셀레늄	티아민(비타민 B1)	리보플라빈(비타민 B2)	니아신(비타민 B3)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
닭고기 가슴살	74.86	23.2	1.65	0.98	114	36.7	32.5	30.8	0.73	27	187	239	68	0.97	0.04	17.8	0.068	0.092	10.6	0.822	0.54	0.38
소고기	73.31	22.27	3.54	1.19	127	45.4	49.3	5.3	1.61	23	211	357	56	4.00	0.077	30.8	0.075	0.12	6.47	0.654	0.63	0.94
돼지고기	73.55	21.06	4.22	1.09	128	38.2	50.0	11.8	0.87	26	218	370	51	1.85	0.069	33.2	1.086	0.292	4.41	0.828	0.63	0.69

농민 긴급 결의대회, 농축산업 말살하는 조직개편 규탄한다!

식품산업의 정부조직 관리·감독 및 규제 일원화해야

전국의 농축산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림축산부' 개칭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농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월 6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와 전국한우협회, 농수축산연합회, 한국농민연대, 대한수의사회 등 축산관련 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불합리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농민 긴급 결의대회를 가졌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식품 분야가 발전하지 않고는 나라가 어렵다고 생각해 식품관련 분야를 일원화 해왔으나, 박근혜 당선인은 농축산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지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을 규제하고 관리·감독은 농림축산부로 이원화시킨다면, 식품산업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식품산업은 20~30%가 성장해 왔으므로 관리·감독 및 규제가 일원화된 정부부처를 지속한다면, 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은 건강권을 보장받고 생산농민도 2차(가공), 3차(유통) 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식약청(보건복지부)이 불량식품 단속을 구실로 식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식약청으로 식품업무를 이원화하면, 식약청에서는 식품안전과 위생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과거와 같이 구분별한 행정조직으로 식품산업을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는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했듯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원화된 통합 관리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분석했다. 농업 선진국들이 일찍이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농정 부처로 일원화하면서 자국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민 긴급 결의대회에 참석한 농축산 관련 단체들은 농업 전문가가 전문한 대통령직인수위가 산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발표한 '농림축산부'로의 개칭 및 규제 업무의 식약청 이관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할 정부조직개편안이라고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상식알자 양계비법전수

Lesson 1 사육기간 동안의 적정 온도와 습도



닭은 항온동물로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지만 적정온도 이상 혹은 이하가 지속될 경우 체온 조절기능에 이상이 생겨 생산성이 저하되고 심할 경우 폐사한다. 육계의 일반적인 육추 적온은 첫 일주일 동안은 32~35℃이며, 그 이후 일주일에 약 3℃씩 온도를 낮추어 주어 21~24일령에 최종온도가 21~22℃에 도달하도록 한다. 따라서 사육기간 내 일령에 맞는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육추 1~2주령에 온도 및 습도 관리는 후기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습도는 계사의 환경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장마철과 같이 습도가 높을 때는 곰팡이로 인하여 사료가 변질되기 쉽고, 여기에 유독물질이 생성되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입추된 병아리의 탈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 3일간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가습기나 안개분무장치를 활용하거나 열풍기 앞에 수반을 설치해 놓거나, 또는 지대를 바닥에 깔아주고 물을 뿌려주어 상대습도가 약 70% 정도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추 당일 적정 습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건조한 공기 흡입으로 인해 병아리의 기관지가 손상을 입게 되며, 이러한 기관지 손상은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질, 각종 유해성분들이 아무 제약 없이 몸속으로 흡입되어 호흡기 계통의 질병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육계사육 후기에는 젖은 깔짚 등으로 인해 계사의 과습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과습은 수분증발로 인한 열발산이 줄어들어 닭의 체감온도를 높여 더욱 더위를 느끼게 되므로 적절한 환기를 통해 습도를 조절해주는 것이 좋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고기 백문백답'〉



AI 차단방역 철저

시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시 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

보고받자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해

종계감축 및 거출금 변경 합의... 대의원총회 3월 6일 예정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 이하 위원회)는 양계산업의 장기불황을 타개하고 닭고기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계감축에 공감을 표하며 종계도태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과 2월 7일 제1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1·2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를 진행하였다.

회의에 앞서 이홍재 위원장은 "위원회가 소비홍보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계산업이 위기에 닥쳤을 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관리위원은 "종계감축이 원활히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과 국내산 닭값이 오르고 오히려 수입산 닭고기가 늘어나면 그것도 문제"라며 종계 감축 이후의 사후대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닭고기자조금도 다른 축종처럼 TV 광고를 하는 등 다양한 자조금 사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자조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2차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들은 육용종계감축 사업추진에 대해 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육용종계감축 사업에서는 총 2회차에 걸쳐 1백만수를 감축하게 된다. 1차 사업에서는 60만수, 2차 사업에서는 40만수를 감축하게 되며, 농식품부의 감독하에 질병검사성적을 첨부하도록 해 보다 공신력있는 종계도태를 실시하게 된다. 만약 종계도태를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위원회는 전체 47여억원 자조금의 2/3에 해당하는 종계감축안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다면 자조금사업비를 다시 재조정하여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자조금 활용을 이끌어 낼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들은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하면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며,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의 대의원 총회는 오는 3월 6일 개최될 예정이다.



제2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

농협중앙회

승진, 인사발령

농협중앙회는 이달 1일부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농협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협동조합이라는 농협의 가치를 실현하고 향후 농협 100년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등용했다고 이번 인사 배경을 밝혔다. 부서장중 축산경영부장에는 김영수 축산경영부 단장이 임용되었으며, 축산경영부 단장에는 박인희 농협사료 기획본부장이, 가금특수 팀장에는 송금석 농협사료 경영관리부장이 각각 승진하였다. 한편 농협목우촌 음성육가공공장장에는 최병하 축산유통부 팀장이 발

령을 받았으며, 가금특수팀장으로 있던 김삼수 팀장은 농협중앙회축산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축산 및 닭고기 산업과 관련된 인사는 다음과 같다.

△김용철 축산기획상무(전 농협목우촌 사장) △성병덕 농협목우촌 대표이사(전 농협중앙회 상무), △김영수 축산경영부장(전 축산경영부 단장), △박인희 축산경영부 단장(전 농협사료 기획본부장), △최병하 농협목우촌 음성육가공공장(전 축산유통부 팀장), △김삼수 농협중앙회축산연구원장(전 축산경영부 가금특수팀장), △송금석 축산경영부 가금특수팀장(전 농협사료 경영관리부장)

(사)대한양계협회



2013년 제1차 이사회 개최 정기총회 2월 27일 개최기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2월 6일(수)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3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서는 2012년 사업추진실적 및 올해 검정연구소 신축관련 보고서상과 올해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올해 사업에는 유통구조개선과 원종계 쿼터제 시행추진 등 양계산물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내용들이 주요사업으로 제시되었다. 산란계의 경우 농가와 상인 간의 직접거래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막고자 GP센터 집하시스템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 육계의 경우 원종계 쿼터제 도입으로 적정사육수수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한양계협회 정관을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여 운영의 모를 살리기로 하였다.

(사)대한양계협회 정기총회는 2월 27일(수)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산닭고기 인증사업 박차

본회에서는 2010년부터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국산닭고기 인증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국산닭고기 인증제는 수입축산물의 범람과 불량 축산물의 증가로 신뢰가 떨어진 국산닭고기의 새로운 소비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 13개 업체((주)한국일오삼농산, (주)지엔푸드, (주)에이에프씨코리아, (주)들판, (주)마세다린, (주)이기에프디에스, 유진물산, (주)정명라인, (주)체리부로, (주)사조인티그레이션, 장모육계유통, 선진 VFC, (주)DS푸드)에서 인증을 획득하여 운영 중에 있다.

'12년 냉동닭고기 수입량은 11만 7천 793톤으로 전년대비 8.5%증가하였으며, 수입산 닭고기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급격하게 성장하며 국산 닭고기를 위협한 닭강정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다수 수입산 닭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허술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혔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산 닭고기 사용 업체들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위해 국산닭고기 인증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육용종계노계육 제품 시식회 개최

육용종계노계의 시장가치 증대방안 연구용역사업 일환 제품개발 주력



대한양계협회 시식회

2012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육용종계노계의 시장가치 증대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육용종계노계육 제품 시식회가 지난 2월 1일(금) (사)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를 맡은 공주대학교 김계웅 교수팀은 육용종계노계의 정육률이 높고 육질이 쫄깃해 다양한 식품으로의 활용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육용종계노계육의 닭가슴살만을 활용한 "더큰 닭가슴살 햄"과 육용종계노계 다리살·가슴육으로 만든 "50+50 순살닭고기 햄", "푸짐한 닭갈비"를 개발하였다.

본회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된 시식회에서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타 축산물에 전혀 뒤지지 않는 육용종계노계육의 제품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대한양계협회에서는 앞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 다문화가정을 통한 품평회 및 관능평가를 갖기로 하고 시식행사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한국계육협회



2013년도 제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추적60분' 축산물 항생제 잔류 보도관련 대책 논의



한국계육협회 통합회의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1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병아리 생산잠재력 및 육계 사육마리수의 증가로 닭고기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KBS 2TV '추적60분'에서 방영 예정인 축산물 항생제 검출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본회 정병학 회장을 비롯한 양계협회, 토종닭협회 임원 및 실무자들은 지난 1월 21일 해당 기자와의 만남을 통해 현재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바로 잡고, 설명절(2월 10일) 전 방송을 한다면 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방송을 취소하거나 설 이후로 방송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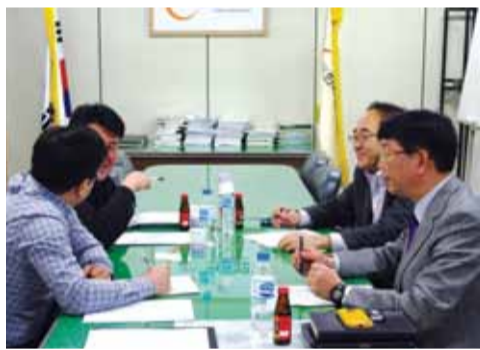
이에 대해 KBS 측은 당초 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방송을 2월 10일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알려졌다.

2013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월간 닭고기' 편집방향 논의

본회는 지난 1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간 닭고기' 편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편집위원들은 오는 2월에는 축산계열화사업법과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는 만큼 농가와 업체 등 계육관련 종사자들에게 본 제도에 대해 알려줄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특집으로 정해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계육협회 편집위원회의

12년 12월 닭 품종별, 암수별 도축실적

도축실적은 생체검사두수에서 도살금지두수를 제외한 도살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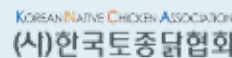
자료제공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과 / 단위 : 수

구분	계	육계	삼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검용종
당월(A)	62,258,033	52,392,392	6,601,624	43,859	530,906	1,116,990
전월(B)	60,454,582	49,301,743	6,928,138	38,182	712,924	1,123,082
전년동월(C)	64,114,607	52,547,144	7,050,027	24,396	511,331	1,838,429
전월대비(A/B)	103.0	106.3	95.3	114.9	74.5	99.5
전년대비(A/C)	97.1	99.7	93.6	179.8	103.8	60.8
당년누계(D)	787,958,258	604,163,516	125,073,420	194,292	7,341,842	20,902,789
전년누계(E)	759,609,670	576,455,045	132,897,636	337,856	5,033,640	23,321,102
누계대비(D/E)	103.7	104.8	94.1	57.5	145.9	89.6

정·기·총·회·개·최·안·내

- ◆ (사)대한양계협회 : 정기총회, 2월 27일, 축산회관 대회의실
- ◆ (사)한국계육협회 : 정기총회, 2월 27일, 수의과학회관 5층회의실
- ◆ (사)한국토종닭협회 : 정기총회, 2월 22일,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

(사)한국토종닭협회



정기총회 2월 22일 개최키로 이사회, 정기총회 앞두고 세부사항 승인

(사)한국토종닭협회 이사회가 지난 2월 6일 10시 30분부터 용산역 ITX 1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3년 대의원 정기총회 안건과 포상자 선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사들은 협회가 준비한 정기총회 안건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정기총회에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회장 후보자 접수를 받은 결과 현 김연수 회장이 단일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총회에서 (사)한국토종닭협회 제7대 회장으로 공포하기로 하였다. 정기총회는 2월 22일(금)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공로패와 감사패 수상자 선정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후 이사들은 여의도 국회 앞으로 이동해 「농업말살! 정부조직개편 규탄! 농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칭과 더불어 식품산업에 대한 진흥은 물론, 안전·위생 등의 사업을 이관해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토종닭협회 이사회

MBC 기분 좋은 날, 겨울철 건강식 토종닭 고구마찜닭 소개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쌀쌀한 겨울철 건강도 챙기고 즐길만한 맛도 즐길 수 있는 토종닭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했다.

1월 31일(목) MBC '기분 좋은 날'에서는 100세까지 건강한 겨울밥상을 소개하며 토종닭을 이용한 고구마찜닭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요리연구가 김영빈 씨는 자신의 스위트홈에서 토종닭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직접 '토종닭 고구마찜닭'을 요리했다.

방송을 통해 김영빈 씨는 "토종닭은 자

연방목을 해서 건강한 성장기간을 가진 닭이기 때문에 지방이 길 틈이 없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다"며 토종닭의 유익한 점을 밝혔다.

한의사 김문호 씨는 "토종닭은 다이어트, 피부노화방지, 성인병예방에 좋다"며 "토종닭은 아주 뜨거운 성질이고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어 겨울철 보양식으로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MBC 기분 좋은 날, 방송화면

KBS 시사교양프로, 자연방목한 토종닭의 쫄깃하고 풍부한 영양성분 소개

1월 30일(수) KBS의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자연방목을 해서 맛이 쫄깃쫄깃하며 건강한 토종닭을 이용해 전통음식과 퓨전음식을 만드는 비법을 소개했다.

방송에서는 배달 닭요리가 인기를 끌면서 보다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닭을 찾는 사람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토종닭은 방목을 해서 더 건강하고 맛있는 닭이라고 소개했다.

요리연구가 정길선 씨는 "토종닭은 놀러봤을 때 육질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색이 붉고 털구멍이 솟은 것이 특징"이라며 토종닭 구별법을 소개하고, "토종닭은 육질이 쫄깃쫄깃해서 삼계탕으로 끓여먹어도 좋다"며 겨울철 보양식으로 토종닭을 추천했다.

토종닭을 이용해 전통요리인 찰흙미백숙을 소개한 우송대 글로벌한식조리학과 박영란 교수는 "닭발에는 콜라겐이 많이 들어 있어서 아이들의 뼈 성분이 성장하는데도 좋고 여성들의 미용에도 좋다"고 소개했다.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방송화면

Today's
계림 열전
열戰

통닭 목은지찜

김장철에 담가 놓았던 김치를 꺼내어 만들 수 있으며 우리 고유의 맛과 색깔이 묻어나는 음식이다. 추운 날씨를 녹여줄 찜요리를 통해 가족 간에 건강과 웃음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자.

재 료 닭(1kg) 1마리, 목은지 1kg, 표고버섯 5개, 마늘 3통, 양파 1/2개, 다진마늘 2큰술, 들기름 2큰술, 대파 1/2대
찜국물 김치국물(걸러서) 1컵, 물(닭육수) 4컵, 굴소스 1큰술, 청양고춧가루 2큰술, 간장 1큰술, 청주 2큰술, 들기름 2큰술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원 안승춘 회장〉

Cooking

1. 닭은 통마리로 준비하여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2. 목은지는 뿌리부분을 자르고 절반은 긴 채로 준비한다.
3. 남은 목은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다진마늘, 들기름, 어슷썬 대파를 섞어 닭 뺏속에 꼭꼭 채워 넣고 다리를 꼬아 속재료가 흘러나오지 않게 한다.
4. 표고는 불려 기둥을 떼고 양파는 굵게 채 썰고 통마늘은 가로로 반을 자른다.
5. 냄비에 목은지 절반 양과 양파, 표고를 깔고 (3)의 통닭을 얹고 남은 목은지를 덮은 후 통마늘을 올리고 찜 국물을 부어 끓으면 불을 줄이고 찜을 한다.

소개하자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인 고려닭



경북종과 문경지방 재래닭
결합해 탄생시켜



고려닭(Corea Chicken)

고려닭(Corea Chicken)은 경북 축산 기술 연구소에서 영남대학교 공동으로 DNA유전자 지문감식법으로 복원한 종이다. 주로 산간지대의 유희지에서 방목 사육한 것을 브랜드화한 것으로, 경북종 재래닭과 문경지방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재래닭을 결합해 탄생시켰다. 몸이 가벼우며 날개가 강해서 나르는 힘이 풍부하며 꼬리가 긴 특징이 있다. 알을 품는 성질이 강하고 활발하며 부화된 병아리를 잘 기른다. 빛은 적색의 단관이고 고기수염은 길며 홍색이고 목의 깃털이 많다. 체형은 장방형으로 체구는 수컷이 28cm, 암컷은 23cm 내외이며, 체장은 수컷이 26cm, 암컷은 22cm 내외이고, 정강이는 수컷이 11cm, 암컷은 9cm 내외이다. 체중은 수컷이 2.4kg, 암컷이 1.9kg이다.

외모상으로는 적(황)갈색종, 흑색종, 백색종, 흑(회)갈색종이 있다. 적갈색종은 전체적인 깃털 색깔 중 진한 갈색을 갖는 종이며, 황갈색종은 연한 갈색으로 나타난다. 흑색종은 원래 깃털이 흑색이기는 하지만 다소 녹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백색종은 깃털이 순백이지만 가끔 흑색 반점을 띠며, 목과 날개에 황갈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 부리와 정강이는 황색이다. 회(흑)갈색은 목 주위가 황갈색 또는 금후색의 띠를 두른 것처럼 뚜렷이 나타나며, 그 이하(등) 부분은 회갈색 또는 흑갈색을 나타낸다. 육질은 타 품종보다 지방질(콜레스테롤 포함)은 적으며 단백질은 다소 높고, 비육이 잘 되지 않아 성장률이 낮지만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놀자 낱말맞추기

1			5		11
			6		
2	3				
			7	8	
4		9			
		10			

◇ 가로풀이 ✨ ✨

- 1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하는 가해 행위
- 2 '수탉'의 방언
- 4 수집하기를 즐기는 버릇
- 6 비행기 안에서 들고 다니는 용도
- 7 발로 부리는 재주
- 10 하급 관청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진 상급 관청

◇ 세로풀이

- 1 버스나 열차가 정지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정해진 곳
- 3 닭의 모래주머니를 속되게 이르는 말
- 4 얼굴이나 몸 등을 닦기 위한 헝겊 조각
- 5 여유가 조금도 없이 아슬아슬하게 딱힌 위기의 순간
- 8 각 중앙 관서에서 재무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
- 9 서양 건축에서 벽체의 오목하게 파인 부분 조각품 등을 세워 둠
- 11 닭 등을 식육으로 씹

40회 정답

삼	계	탕		모	육
		평			망
		중	책	여	
중				왕	자
계	몽	운	동		수
	유			세	정



... 41회 정답은 42회에 게재합니다

건강하자

동의보감에서 밝히는 '붉은 수탉'의 효능

❖ 단웅계육(丹雄鷄肉, 붉은 수탉의 고기)
-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性微溫) 맛은 달며(甘味) 독이 없다(無毒). 주로 여자들의 붕루(崩中漏下)와 적백대하(赤白)를 치료하는데 좋다. 허(虛)한 것을 보(補)하며 속(中)을 따뜻하게 하고, 정신이 좋아지도록 하며(通神) 독을 없애고 좋지 못한 것을 피하게 한다[본초].
- '주역(周易)'에 "손괘(巽)는 닭이 되고 바람이 된다(爲雞爲風)"고 쓰여 있다. 닭이 새벽 4시경에 우는 이

유는 해가 장차 손방 즉 동남쪽 사이에서 떠올라 오려는 기운을 감수(感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풍증이 있는 사람[風人]은 먹지 말아야 한다(不可食)[본초].
- 닭은 토(土)에 속하나 금(金), 목(木), 화(火)의 성질을 보해주기 때문에 습 가운데 화(濕中之火)를 도와준다.
❖ 단웅계두(丹雄鷄頭, 붉은 수탉의 대가리)
- 사귀(殺鬼)를 죽이는데 동쪽 문(東門) 위에서 자는 것이 더 좋다[본초]

❖ 주웅계관혈(朱雄鷄冠血, 붉은 수탉의 뺨피)
- 목을 매고 죽은 것[自縊死]과 귀에 온갖 벌레가 들어간 것[百蟲入耳]을 낫게 한다. 백전풍(白癩風)과 역양풍(癩癬風)도 치료한다[본초].
❖ 주웅계관분(朱雄鷄冠糞, 닭똥)
- 호랑이가 깨무는 듯 뼈 마디가 아픈 병인 백호역절풍(白虎歷節風)을 치료한다(治)[본초].

